

제주·서귀포 법인격 자치시 도입 가능할까

강원특별도 현 행정체제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 출범
인천시는 28년만에 2군·8구서 2군 9구 체제로 전환
도 “자치부활에 부정인식 가진 정부·국회 설득 도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제주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개 시·군(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 폐지를 암묵적으로 강요해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군 폐지를 만들어 냈으나 제주자치도에 이어 6월 11일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

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시·군 통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 분리·합병 등)에는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2군(강화·옹진군)·8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분리해 2군·9구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행정의 이원화 등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이전인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도들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도의 지위를 누리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분구를 추진하고 있어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기대감

이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 제시,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출범 후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오늘부터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는다

요양병원·입소형시설·의료기관 등선 계속 착용
도 “신규 확진 꾸준… 마스크 착용 자율 실천을”

오늘(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할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이다.

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이나 합장,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만 14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세계산림의 날 기념 나무심기 행사

21일 오전 10시 한라생태숲

무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한라생태숲에서 제78회 식목일과 세계산림의 날을 기념하는 나

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 도내 기관·단체장 및 외국인 등 200여 명이 참석

해 참꽃나무 400본을 심고,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인과 함께 인식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세계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 주재 영상관과 유학생 등 13개국 26명이 참석해 제주에 지내면서 보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도

내 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자연유산 제주 이야기’ 시간을 통해 나무심기의 의미 등을 공유한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소박한 무꽃의 유혹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완연하다.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하나 둘 씩 고개를 내밀고, 바람에도 온기가 묻어 난다. 봄기운 완연한 19일 서귀포시 중문동 무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새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2공항 찬반 의견 이번엔 정리될까

도, 이달 29일 시작 도민경청회 세차례 개최
국토부, 수렴 도민 의견 반영 여부도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도민사회에서 팽팽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찬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도민경청회를 세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도민경청회는 오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4월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각각 오후 3~5시에 열린다. 경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없이 제

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등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검토에 어느정도 반영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도민경청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 모두를 아울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해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태운기자

HYUN LAW

법무법인(유) 현 제주분사무소 개소 안내

법무법인(유) 현은 제주분사무소를 개소 하였습니다.

주사무소의 금융(PF, SF, NPL, 자산운용 등),기업자문(M&A, 투자, PEF), 지적재산권(기술, 문화, 무역),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주지역에 유기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관행에 의존하지 않는 투명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로펌이 되었습니다.

■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복5길 6, 4층 (T) 064-752-2014

■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J-Tower 4,5,6,13층

■ 경인지역본부·부천분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536번길 20 MG빌딩 4층

■ 해외지사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러시아 모스크바

자산운용 현 부동산중개법인 현 회계법인 현 특허법인 현